[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소식지-인물포커스]

전문대학 본질 회복과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김영도

Q. 새롭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A. 전문대학인으로 27년간을 지내며 전문대학이 국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선진화된 한국 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기술 관련 전공을 선호하지 않으면서 전문대학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인구절벽, 지역간 격차, 산업 공동화 문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지역정주형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중심이 되어 고등직업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전문대학의 위상을 다시금 세워야 합니다. AI 하이테크시대에 걸맞는 직업교육으로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임기 시작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먼저 모든 대학의 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게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A. 해외 선진국처럼 교육기본법에서 직업교육을 독립적인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은 15세 이상 나이의 경제활동인구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평균 74세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재취업·전직·창업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직업교육법이 마련되어야만 장기적인 국가 직업교육 기

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대학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동결해 온 등록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국고 재원의 확보와 대학 재량으로 국고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몇몇 규제가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어서 규제 개선에도 많은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재정 문제나 규제 개선에는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 학령인구의 감소, 직업구조의 변화 등의 외부적인 변화로 인해 전문대학의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A. 학령기 학생의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이미 10여 년부터 겪고 있으며 최근 미충원 문제가 더욱 심화 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다운사이징하고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과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구조조정에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대학들은 평생직업교육으로 눈을 돌려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대학의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를 살릴 하나의 돌파구이기도 합니다. 전문대학은 성인학습자들의 재취업·창업을 위한 전공 전환교육은 물론, AI 하이테크, DX 교육의 지역기반 교육 학습장으로써의 역할이 날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Q. 등록금 동결, 정부 재정지원 미흡으로 대학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립전문대학(사학)에 대한 지원책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대학이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어야만 안정된 교육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16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왔으며 매년 정원 감축으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여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들은 국고지원사업비에 의지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허약한 체질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에게 등록금 현실화와 국고지원 확대 및 자율적 집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학교육협의회와도 협력하여 함께 힘을 모아 볼 생각입니다.

Q. 2025년부터 국고지원사업이 라이즈사업으로 바뀌는데 전문대학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A. 중앙지원방식에서 지산학기반 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준비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현재로는 정확한 윤곽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전문대학들이 일반대학에 편파적인 평가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교협에 라이즈사업 대응 조직을 만들어 17개 광역시·도와 접촉하며 전문대학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면 전문대학이 해야 할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교육을 전문대학이 담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Q. 지난해 정부는 2027년까지 Study Korea 300K Project를 발표하였으나 현재 전문대학에 온 유학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유학생 유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A. 최근 통계를 보면 18만 명 정도의 유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는 1.7만 명 정도가 유학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소멸 위기와 맞물려 지역산업체에 현장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학 후 취업하여 정주하는 정주형 유학으로 비자 정책이 바뀌고 있어서 전문대학으로의 유학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마 2027년까지 10만 명 정도의 유학생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 3월에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를 창립하여 제가 초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62개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방송통신대와 협력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8월 말에는 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과 협력하여 유학생 유치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정주형 유학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이 더욱 유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바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전문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학들이 소재한 지역 사정도 다

르고 규모도 각기 다르다 보니 생각이 모두 하나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업교육법 마련이나 국고지원의 확대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대학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대학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를 향한 큰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모든 회원대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변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